



자총,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

남북 간 민간단체 교류협력 적극 협조도 밝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지지 활동을 하며 한반도 평화 조성에 함께하고 있다. 박종환 총재와 본부 임직원 17개 시·도지부 회장들은 4월 30일 본부 광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

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발표, “한반도의 획기적 변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종환 총재가 낭독한 이날 성명에서 자총

은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북한이 그동안 각종 선언·합의에도 여러 차례의 핵무기 실험 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며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자총은 이날 성명 발표 외에 서울 중구 자유센터 정문과 전국 각지에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본부 직원과 서울시지부 회원들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저녁 경북구역 근처 청와대 진입로 주변에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인도주의 실현 MOU 체결



자총은 5월 3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박종환 총재와 인도주의 실현 MOU 체결 관련 인사장 및 한승경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제협력 증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및 재외동포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국내외의 재난 긴급구호 사업에 대한 협력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 및 활동 홍보에 관한 내용을 약정했다.



◇자총은 4월 30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한반도의 평화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한국자유총연맹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합니다. 양 정상은 공동 발표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 시대가 시작됨을 엄숙히 밝히면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 변영을 과감히 열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획기적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통일, 평화통일 및 민족대단결 원칙을 비롯, 2000년 6·15 공동선언 및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선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핵무기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하여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기본방향을 밝힌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음에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북측의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진행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도 이 모든 과정이 이제껏 그래왔듯 마지막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확실한 명제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의 획

기적 변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옹호, 발전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임을 상기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한국자유총연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 하나, 우리는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남북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 변화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자총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자총 350만 회원 일동은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관용의 미덕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 수호가 우리의 길임을 선언합니다.

2018년 4월 30일

